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의 운영방식과 조직성과: 경기도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례연구

윤석진¹⁾, 윤현수²⁾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운영방식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제도화가 진행되어 조직성과가 달라진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했다. 한국의 중간지원기관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와 지역 공동체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간지원기관은 사업방식, 사업유형 등과 같이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그 유형을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서 관주도형(공설공영), 민간주도형(민설민영), 민간위탁형(공설민영)로 구분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관주도형 및 민간위탁형을 기준으로 운영방식을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은 2017년 설립된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인데, 설립 당시 관주도형으로 설립되어 양주시가 직접 운영하였으나 2022년 민간위탁형으로 전환하였다. 이 기관은 공설공영 및 공설민영의 운영방식을 모두 경험하였기에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설공영 방식의 중간지원기관은 정량적 성과평가 방식과 수직적 조직구조 등에서 강제적 동형화가 발생하여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 분야의 중간지원기관은 동시다발적으로 설립, 운영되어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조직형태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공설민영 형태의 중간지원기관은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가 비교적 수월히 발생하여 조직혁신이 일어난다는 점을 제시하여 추후 중간지원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중간지원기관, 사회적경제,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석사과정(kimkooyoon@naver.com)

2)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선임매니저(himcha@nate.com)

Operational method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the social economy intermediary organization: The case study of Yangju City Social Economy Support Center

Yoon, Seokjin³⁾ Yoon, Hyunsu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operational methods of social economy intermediary organizations impa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Korea, intermediary organizations began to be activated with the purpose of mediating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ies after the enactment of the Social Enterprise and cooperatives Promotion law. These intermediary organizations can be defined based on various criteria such as business methods and types. In this study,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were based on the organizers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distinguishing between government-founded (public-led), and public-led and privately-commissioned (public-private partnership) types. The Yangju Social Economy Support Center,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established in 2017 as a publicly-led organisation and switched to a privately-commissioned type in 2022. This organization has experience with both public-led and privately-commissioned operational methods, making it suitable for this stud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public-led intermediary organizations tend to experience limitations in performance due to mandatory standardization in quantitative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s and hierarchical organizational structures. Secondly, Social economy intermediary organizations are simultaneously established and operated, leading to nationwide similarities in organizational forms and activities. Thirdly, privately-commissioned intermediary organizations i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type tend to facilitate cooperative public-private governance relatively easily, leading to organizational innovation.

Key words : Intermediary Organization, Yangju Social Economy Support Center

3) Department of Management of Co-operatives, Master's student, Graduate School,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Korea (kimkooyoon@naver.com)

4) Yangju Social Economy Center, Predecessor Manager, Yangju-Si, Korea (himcha@nate.com)

I. 서론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는 급격한 양적성장을 이루었다. 2007년 사회적기업의 경우 55개소로 시작하여 2021년 12월 말 기준 3,215개소 활동 중이며 61,877명 고용 중 36,605명 취약계층의 고용 성과를 만들었다(기획재정부, 2022). 이 같은 급격한 성장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국가의 주도적 역할, 시민사회의 성숙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의 양적성장을 일궈낸 다양한 요인 중 행정과 기업의 사이에서, 민과 관의 중간자로서의 중간지원기관의 운영방식에 따른 성과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에 따라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지자체가 설립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도 하는 등 운영방식이 상이하다. 최근 2년 동안 경기도의 경우 민간위탁의 운영방식을 철회하고 직접 운영하는 공영 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그와 같은 중간지원기관의 운영방식 변화가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구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직의 성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다. 이 기관은 2017년도 개소하여 공설공영되어 운영되었고, 2022년에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되었다. 문헌 자료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중간지원기관의 운영방식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성과에 대해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운영방식의 변화가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구축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민간 위탁방식의 중간지원기관은 민관 거버넌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지역과 환경에 맞는 중간지원기관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이론리뷰

1.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중간지원기관’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이후 제3섹터인 NPO(Non Profit Organization, 이하 NPO)와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직 간의 역량강화와 역할 조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그 가운데에 위치한 지원조직을 지칭하면서 그 개념이 발전하였다(이자성, 2018). 이러한 중간지원기관의 특징은 대상 조

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및 기관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협력적인 관계에 있는 조직들의 활동을 조정하며, 자금의 조달 및 지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 등과 같은 자원을 제공하는 자원소개기능, 그리고 각 수혜자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개발 및 교육활동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Hatch, 1980). 미국 및 유럽 등은 고용문제 및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제 3섹터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하였고 이를 위한 중간지원기관을 구축하였는데 미국의 중간지원기관은 1800년대 후반에 기반조직(Infrastructure Organization)으로 불리며 등장했다. 1970년대 후반, NPO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각 조직의 회계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한 중간지원기관이 대폭 증가하였다. 영국은 중간지원기관을 산하조직(Umbrella Organization)으로 표기하였고 이후 이들을 VCS(Voluntary & Community Sector, 이하 VCS)라고 지칭하였다. 영국은 시민сек터와 정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인재 육성, 자금조달, 전문가 연계 등 중간지원기관으로서 VCS를 지원하여 지역 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김재현 외, 2013).

이처럼,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사업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과거 설치된 다양한 목적의 중간지원기관들이 정부의 정책 전달 및 사회 전반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실제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진행하면서, 최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나 활동 영역, 필요성, 개념 등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강권오·남윤섭, 2022). 특히, 한국에서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중간지원기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 중간지원기관(Intermediary Organization)의 사전적 개념은 정부와 지역 공동체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을 말한다(김민찬·남재걸, 2021). 사회적 경제 내에서 중간지원기관의 개념은 어떤 주체가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특정 활동이나 기능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조직이며 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마상진, 2011). 지식경제부는 2018년 중간지원기관을 전문성과 마케팅 능력, 기획력 등을 갖춘 조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등을 통해 전문지식 및 활동기반을 구축하고 민과 관의 공통적인 ‘주요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재육성, 정보제공 등을 실행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하였다.

중간지원기관의 유형은 누가 설립하고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사업방식 및 활동지역 범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른 중간지원기관 분류 유형을 기준으로 조직성과를 비교한다.

<표 1> 기준별 중간지원기관 유형

①설립/운영	②사업방식	③활동지역
공설공영(公設公營)	종합지원형	광역형
공설민영(公設民營)		지역형
민설민영(民設民營)	특정분야 지원형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유형은 관주도형, 민간주도형, 민간위탁형 등 3개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참조). 첫째, 관주도형(이하 공설공영)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유형이다. 공익성 증진의 목적에 적합하며 재정적인 안정성을 보유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례, 시책, 정책에 기초하여 정부 혹은 지자체 단체장 의견이 사업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정부의 대변인 역할에 머문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또한, 이러한 운영방식은 행정이 직접적으로 제시한 운영방식에 따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존재하여 창의적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민간주도형(이하 민설민영)은 민간이 설립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유형이다. 행정기관의 간섭 없이 중간지원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자율성과 유연성이 장점이지만 재정안정의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존재하여 다양한 사업(교육, 조사연구 등)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업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위탁형(이하 공설민영)은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설립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이다. 일정 부분에서는 행정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행정과 협동운영하는 방식으로도 모색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안정적 예산확보에서 큰 강점이 있고, 운영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민간과 결합하여 운영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해당 방식도 위탁 기관의 지침이나 의견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주도형에 비해 운영상 유연성이 낮다(지식경제부, 2011: 28-29; 마상진, 2011: 12-13; 강내영, 2011).

<표 2>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른 중간지원기관의 유형

	공설공영(관주도형)	공설민영(위탁형)	민설민영(민간주도형)
주체	정부(행정)	정부(행정)	민간단체
운영주체	정부(행정)	민간단체(입찰 혹은 수의계약)	민간단체
사업자금	정부(행정)자금	정부(행정 혹은 지자체)자금	자체 자금
자유도	규제있으나 안정적	수탁단체의 능력, 전문성,	불안정(자유로움)

		경제적 자립도는 교섭능력이 필요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자금 • 운영의 연속성 • 뚜렷한 목표성과 도출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의 유연성 • 예산의 안정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주체성 • 사업운영의 유연성 • 시민섹터의 높은 주체성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시적 성과도출 필요 • 기관장 의견 중요, 각종 규제 이행 • 담당자의 빈번한 인사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시적 성과도출 필요 • 운영주체의 능력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확보의 어려움 • 운영전반에 높은 전문지식 요구
특징	사회적 신용 및 자금이 안정적이나 행정주도형으로 운영되기 쉽고 특히 직원의 이동으로 책임성 문제로 인한 지원제로서 전문성 및 선구자적 성격을 기대하기 어려움.	행정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회비, 조성금, 자체사업 등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시민주도의 운영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시민이 자발적으로 시민공익활동을 추진해 의욕 넘치는 거점 운영을 목표로 하나 높은 경영 능력 필요함.

자료: (강내영, 2011; 지식경제부, 2011)

2. 제도적 동형화와 조직성과

제도주의에서 조직은 사회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인정되는 규범과 가치를 흡수하여 제도화를 이룰 때 그 조직은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고 생존하여 발전한다고 설명한다(Scott & Meyer, 1994). 제도주의 관점은 Dimaggio & Powell(1991)에 의해 확산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신제도주의라는 이름으로 확산되었다. 신제도주의 이론은 구제도주의 이론과 뿌리를 공유한다. 신제도주의의 출발점은 1977년 존 메이어(John Meyer)의 논문에서 시작되었다면, 제도주의는 1949년 필립 셀즈닉(Philip Selznick)의 연구에서 출발한다(유규창, 2019). 두 이론 모두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에 대해 비판하며 조직 내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과정을 중시한다. 또한, 제도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지 못하는 조직 내의 행위자들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는지에 관심을 둔다(오단이, 2013).

그러나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을 가지고 있다. 구제도주의는 조직 내 문제해결에 관심이 있어 조직 내 갈등이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즉, 구제도주의는 제도화가 합리성을 제한하는 원인이 구성원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정치적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신제도주의에서는 비공식적 상호작용보다는 조직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도화가 합리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유규창, 2019). 또한 조직이 활동하는 환경적인 공간에 대한 관심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 구제도주의의 분석 수준은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신제도주의는 조직필드나 그 조직이 활동하는 사회 전체로 분석 수준이 확대된다. 따라서, 제도화의 범위도 구제도주의는 조직 자체에 한정하는 반면, 신제도주의는 조직필드 및 조직과 조직 간에 벌어지는 제도화까지 포함한다. 특히, 신제도주의는 서로 다른 조직이 닮은꼴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제도적 동형화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유규창, 2019).

Dimaggio & Powell(1991)는 조직의 성장단계에 비추어 볼 때 처음 조직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는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나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의 조직필드가 형성이 되고 일단 조직필드가 형성이 되면 그 필드 내에 있는 조직의 구조나 관행은 다양성보다는 동질성을 보여준다는데 주목한다. 이때 형성되는 것이 제도이며 즉, 제도는 독특한 행위자와 정당한 활동 루틴을 정의해 주는 표현적, 구성적, 규범적 규칙과 규제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상징과 행위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Scott & Meyer, 1994).

조직필드는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조직 이외에도 주요 공급자, 소비자, 규제와 관련된 조직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유규창, 2019).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으로 예를 든다면, 수혜받는 조직부터, 중간지원기관 구성원, 정부기관, 후원기관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신제도이론에서 제도적 동형화는 조직들이 유사해지는 이유를 다른 조직이나 정치적인 역학관계, 제도적인 정당성, 사회적인 적합성 등에서 찾는다. 이러한 제도적 동형화가 작동하는 데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 3가지 원리가 존재한다(이경목, 2012).

강압적 동형화는 정치적인 영향력과 정당성의 문제에서부터 발단된다. 조직은 사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 존재하는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즉, 강압적 동형화는 어떤 조직이 한 사회의 규정, 법 등에 의해서나 다른 조직에 예속되는 경우, 상위 조직의 영향으로 강제적으로 제도적 규범을 수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오단이, 2013). 사회적경제 필드에서 강압적 동형화는 어떠한 조직이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다른 조직으

로부터 공식적, 비공식적인 압력이나 혹은 정당성의 문제에 의해서 조직에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기대”라는 압박속에서 조직형태가 제도적으로 수렴되어 가는 것이라고 제시할 수 있다. 장원봉(2009)은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타 국가의 사회적기업과는 달리 정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적이고 강제적 제도적 동형화의 압력을 받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방적 동형화는 불확실성에 대한 표준화된 반응에서부터 시작한다(유규창, 2019). 조직을 운영하는 기술체계가 정립되지 않았거나, 목표가 불분명할 때도 조직은 불확실성을 마주친다. 모방적 동형화는 한 사회의 제도적 규범을 수용한 타 조직을 모방하여 제도적 동형화가 수렴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방적 동형화는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고, 기술이 모호하거나 조직의 목표가 불확실할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 조직을 모델로 모방하여 동형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정다민(2013)은 한국의 사회적경제 환경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목표를 측정하는 척도가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의 환경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기관은 소수의 성공적인 형식을 모방함으로써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모방적 동형화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동형화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제도적 규범이 수용되는 것을 의미한다(오단이, 2013). 이러한 규범적 동형화는 전문화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전문화란 특정 분야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작업 조건이나 방법을 정의하거나 작업의 최종 산출물을 통제하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유규창, 2019). 전문화를 통한다면 전문가 집단이 타 집단으로부터 직업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식적인 기반과 정당성을 갖게 되며 결과적으로 전문화는 대학과 같은 기관의 공식적인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전문가들이 갖추어야 할 규범적인 규칙이나 행동양식을 규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규범적 동형화 기제를 통해 조직 구성원이나 조직 간의 관계적 네트워크가 세부화되고 그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들은 집단적 동형화 현상을 보여줄 수 있다.

3. 선행연구 리뷰

본 연구에서는 서술적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서술적 사례연구는 사례연구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 중 하나로, 정책 개발, 학술적 논의,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연구를 통해 가능한 시사점이나 이점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된다(김영천·정정훈, 2021). 이를 위해 서술적 사례연구는 다양한 문서 분석, 심층 면담, 관찰과 같은 방법을 통해 특정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험, 관점, 세계관 등을 드러내고자 노력한다. 서술적 사례연구는 일반화를 위한 전형성의 발견이 사례연구의 목적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즉, 사례연구의 결과는 반드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에 대한 이해에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관련된 실천적, 정책적 질문에 대한 해답의 하나의 열쇠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중간지원기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미미하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과 관련된 연구는 19건으로, 이 중에는 학위논문도 포함하고 있어, KCI 등재지로 그 기준을 바꾸면 더 감소한다. 그중 사례연구로 중간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해 제시하도록 한다.

<표 3> 중간지원기관 연구 연대별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논문 수	3	-	-	2	1	1	2	4	1	-	4	1
비율	16%	-	-	11%	5%	5%	11%	21%	5%	-	21%	5%

김보람·최정민(2017)은 중간지원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연구하며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의 관계를 분석하여 행정기관과 공설민영 중간지원기관의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료로써,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연구보고서 등의 문헌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대시민 공개 문서 및 서울시 온라인 공개자료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의 자료를 통해 센터와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실무자 및 관리자를 총 3회에 걸쳐 인터뷰하였다. 이 연구는 단일사례 연구로서 타당도 확보를 위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서 등 다양한 서면자료를 이용, 서울시와 센터 간의 협력관계 모형을 구성하여 동인, 촉진요인 등의 항목을 포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진 인터뷰를 통해 해당 모형의 근거를 발견해 나갔다. 인터뷰에서 센터는 “서울시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종합성과평과 등을 받아야 한다”라는 점을 도출, 성과를 가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정량적으로 수치화해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밝혀내 거버넌스의 한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민간위탁종합 성과평과와 같이 추진 사업에 대하여 외부 기관의 평가를 진행하는

데, 이때 배점 및 평가항목에 대한 기준이 서울시가 민간위탁한 전체 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이는 실제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보다 부정적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음을 밝혀냈다.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자원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의 관계가 종속관계로 변질될 경우, 효과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Yin(2009)은 사례연구에서 구인 타당도,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구인 타당도 확보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증거확보, 참여자에 의한 사례연구 보고서 확인, 증거/자료 간의 관련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김보람·최정민(2017)의 연구는 협약서 및 결산서 등의 자료를 확보, 실무진 및 경영진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구인 타당도를 충실히 확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내적 타당도 및 외적 타당도, 신뢰도의 경우 Yin(2009)은 심층기술, 삼각 검증, 수집과 분석의 반복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해당 연구의 사전연구라고 볼 수 있는 김보람(2016)의 학위논문에서 충실히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III. 사례연구방법

사례연구란 특정 인물, 사회, 상황, 사건과 같은 ‘사례(case)’를 탐구하기 위해 이에 관한 형상, 행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특정한 상황과 맥락에 기초하여 이해하는 연구 방법론이다(김영찬·정정훈, 2021). 사례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목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개념이 존재한다. 아울러 모든 연구는 연구대상이 있으며, 이를 ‘사례’로 부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OO사례에 대한 연구’라는 의미로 ‘사례연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이원석, 2020). 이원석(2020)은 연구 현장에서 사례연구가 질적 연구방법의 주요 유형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일반적인 질적 연구를 포괄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면 이는 연구방법론으로서 사례연구의 이론적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유용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 우려했다.

사례연구를 연구하는 주요 학자들 간에도 연구 방법으로서의 사례연구의 핵심이 연구대상(Unit of study)에 있는지 혹은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사례연구와 관련하여 로버트 K. Yin(Robert K. Yin)의 사례연구와 로버트 E. 스테이크(Robert E. Stake)의 사례연구가 중요하다. 사례연구 방법에서 ‘사례’의 정의에 대해 Stake는 ‘장소로서의 사례’라고 주장하며, Yin은 ‘현상으로서의 사례’라고 주장한다.

Stake는 ‘사례’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한된 체계로 간주한다. 즉 학교, 프로그램, 기관, 병원과 같이 물리적으로 구분 가능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영천·정정훈, 2021). Stake는 사례가 가져야 하는 몇 가지 속성을 제시한다. 특정하고 복잡하며 기능하는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 경계와 작업 부분을 갖는 통합시스템으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그 속성이다(장용석, 2019).

반면, Yin은 ‘사례’를 연구자가 탐구하는 것은 기관이나 장소라기보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연구자가 관심을 가진 활동이나 현상을 사례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영천·정정훈, 2021). 특히, 실제 생활 맥락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 내에서 현상과 맥락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연구자가 현상과 맥락을 거의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사례’라고 정의하는 것이다(Yazan, 2015).

Stake는 연구의 목적이나 주제가 어떠한 현상이나 실천이라 할지라도 연구자는 물리적 공간의 경험적 실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Yin은 사례를 공간으로만 이해할 경우 구체적인 연구 목적과 질문 탐구를 위한 연구 방법적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소가 아니라 현상을 사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영천·정정훈(2021)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실제적, 실천적 측면에서는 생산적이지 못한 논쟁이라고 주장한다. 양 의견이 가지고 있는 차이는 철학적, 이론적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있겠지만 현재 많은 학자들이 각자의 연구 목적을 위해 이 두 입장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Stake와 Yin의 입장은 분명한 교차점이 존재한다. 그중 Yazan(2015)은 각 연구가 주창하는 바에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구체적인 문제의식의 측면에서 분명한 교차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Stake(2006)가 사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과녁’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면 상호간의 교차점을 발견할 수 있다. Stake가 제시한 “사례와 과녁” 개념에서 사례가 물리적, 경험적 실체로서 개인, 학교, 기관, 프로그램 등을 의미하며, 과녁은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기능, 활동, 현상 등을 의미한다. Yin의 사례가 Stake의 과녁이 되고 Stake의 사례가 Yin의 과녁이 되기 때문에 분명한 교차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서로 간의 우선순위의 차이로 인식할 수 있다.

Yin은 사례연구를 “현상과 맥락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실제적인 맥락 안에서 현재의 현상을 탐구하는 경험적 조사”라고 정의한다. 해당 정의에서는 연구할 대상으로서 ‘사례’ 또는 ‘경계 지워진 체제’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맥락과 뚜렷이 구분되기 어려운 현재의 현상이라는 광범위한 연구대상을 제시하고 있다(이원석, 2020).

Yin은 사례연구의 설계를 매우 강조한다(Yazan, 2015). 그는 사례연구를 목적에 따른

정보의 제공과 평가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사례 규모에 따라 단일 사례연구와 다중 사례연구로 분류하였으며, 목적에 따라 탐색적·기술적·설명적 사례연구로 범주화하였다(김영천·정정훈, 2021). Yin은 연구방법들이 위계적 관계를 가진다는 인식을 제시하였다. 즉, 사례연구는 탐색적인 단계에서만 사용되고, 기술적인 단계에서는 서베이, 역사 연구가 필요하고 설명적인 단계에서는 실험연구가 적절하다는 인식을 비판하면서 사례연구의 유형을 탐색적, 기술적, 설명적 사례연구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현상이나 주제에 대해 탐구하는 목적일 경우 탐색적 사례연구, 어떤 현상에 대해 묘사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 사례연구,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수행할 경우에는 설명적 사례연구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Yin의 사례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Yin(2009)은 사례연구 모형을 상호 의존적인 여섯 단계(계획, 설계, 준비, 수집, 분석, 공유)로 이론화하였다. 계획 단계에서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문제를 명료하게 하고, 왜 자신의 연구가 ‘사례연구’ 방법으로 탐구되어야 하는지, 그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중간지원기관의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고, 또 그 조직의 수가 많지 않아 절대적인 지표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공설 중간지원기관은 등장으로부터 10~15년 이내로, 현상과 관련된 서술적 사례연구를 통해 추후 지원기관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인 함의를 포함하기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일관성을 확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서정보로는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및 사업별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을 열람하였고, 2017년부터 2022년도 12월까지의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를 열람하였다.

IV.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례연구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방식에 따른 중간지원기관의 제도적 동형화가 조직의 성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중 운영방식의 변화를 겪은 센터 중, 깊이 있는 이해와 상호작용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고 관찰이 가능한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경기도 파북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아, 2017년 10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직접 설립하여 운영(공설공영)하였으며, 2022년 1월 민간에 위탁하는 공설민영의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되면서 센터의 역할, 조직의 구성, 주요사업 등 변화된 내용들이 있어, 조직운영의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중간지원기관의 운영방식에 따른 조직의 성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연구자가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구성원이다. 정량적 측정을 통한 성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혁신적 성과를 만들기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장의 과정을 살펴보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완전 참여자로서의 참여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의 변화

양주시는 2015년도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적 요구에 따라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도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을 목표로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상담, 컨설팅, 교육, 생태계 조성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개소 후 2018년부터 2021년도 12월까지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각 사업분야로 담당 임기제 공무원 각 1명씩을 두어 운영하였으며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소통 워크숍 등을 주요 업무로 양주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업의 성과로 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은 2018년도 51개소에서 2021년도 11월 기준 119개소로 성장하였고, 기업의 양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양주시는 지원사업을 고도화 및 전문화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결정하였다. 양주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하였으며, 지난 2021년 12월 24일 양주시와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다(세계타임즈, 2021).

이로써 2022년 1월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민간위탁운영의 중간지원기관으로 비상근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상근자 4명을 배치하여 양주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과 판로개척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등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개 및 주요사업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현재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도시, 양주’의 비전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며 공공과 민간을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네트워크 지원 및 자원연계, 판로 확대 및 성장지원, 사회적경제 친화적 환경조성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및 특화사업을 포함하여 5대 과제를 설정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상담, 창업 3년 미만의 기업들 대상의 스타트업 컨설팅 및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아카데미, 프로보노 경영자 문서서비스, 협업사업 모델개발 및 지원, 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자원발굴 및 연계,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양주시 사회적가치 성과지표 분석 및 구축사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연계, 판로확성화 지원사업, 사회적금융 자금조달 연계, 사회적경제 나눔장터-기버마켓등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사업(2023년)

추진전략	사업명	추진내용
1. 사회적경제 기업발굴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운영상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상담
	start-up 컨설팅 및 연계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 아카데미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
2. 네트워크 지원 및 자원연계	프로보노 경영 자문 서비스	경영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
	협업사업 모델 개발 및 지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및 활성화
	네트워크 역량 강화 워크숍	사회적경제 기업 간 소통 및 정보 교류
	자원 발굴 및 연계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 발굴 및 연계
3. 판로 확대 및 성장 지원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사회적가치 성과지표 분석 및 구축사업	사회적가치 종합 측정 및 평가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연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판로 활성화 지원사업	세미나, 홍보물 제작, 구매상담회 등
	사회적금융 자금조달 연계	투융자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4. 사회적경제 친화적 환경조성	사회적경제 나눔장터-기버마켓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
	홍보 활성화 사업-“사회적경제 일과만파”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5. 지역사회 공헌도 및 특화사업	지역특화사업_양주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수립 및 네트워크 의제발굴	양주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일자리정책마켓 드림투게더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연계
	양주 사회적경제 정책세미나	사회적경제 현안에 대한 이슈발굴 및 공론의 장 마련
	서정대학교 HiVE 사업연계	지역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취창업연계

자료: 양주시 사회적경제 자원조사 및 욕구분석 자료 (2022)

3.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성과 및 사업현황

2018년부터 2021년도 12월까지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포함하여, 네트워크 워크숍 및 민간합동연찬회, 양주시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등 마을공동체 지원의 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지원업무가 분리되어 양주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과정,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외 지역특화사업으로 양주시 사회적경제 자원조사 및 욕구 분석 등의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3>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사업(연혁)

년도	주요 사업
2018	2018.04.~10. 양주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운영 2018.08.~11. 사회적경제 스쿨운영 2018.09. 양주시 사회적경제한마당 2018.11.01.~03. 양주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소통워크숍
2019	2019.04.~10. 양주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운영 2019.04.~08. 양주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5개과정, 119명 수료) 2019.07.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통합워크숍 ‘왔다, 문호리!’ 2019.09.02.~03.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워크숍 2019.06.~11. 양주시 터무늬학교 교육 및 실천과정 운영(마을공동체 기본교육)
2020	2020.05.~10. 양주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4개과정, 127명 수료) 2020.08.~10. 양주시 사회적경제나눔장터 ‘기버마켓’ 3차 (옥정중심상가, LF스퀘어)

	2020.01.~12. 양주시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운영 2020.03.~12.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4개소 선정 운영 2020.03.~12.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1개소 선정 운영 2020.11. 양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2021	2021.04.~09. 양주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4개과정, 283명수료) 2021.05.~10. 양주시 사회적경제나눔장터 ‘기버마켓’ 3차(LF스퀘어) 2021.02.~12. 양주시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운영 2021.01.~12.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2개소 선정 운영 2021.01.~12.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1개소 선정 운영 2021.03~10. 양주시 터 무너 학교 진행 2021.11. 양주시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개최
2022	2022.01.~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_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04.~12. 양주시 창업교육아카데미(5개과정, 261명 수료) 2022.04.~11. 2022년 일자리정책마켓 드림투게더(21개 기업, 청년활동가 26명 참여) 2022.06.~10. 양주시 사회적경제나눔장터 ‘기버마켓’ 3차(LF스퀘어, 회암사지 일원) 2022.08. 2022년 양주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2022.08.~12. 지역특화사업 ‘양주시 사회적경제 자원 조사 및 욕구 분석’ 2022.09. 제 1회 사회적경제 정책세미나 ‘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2022.12. 양주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제정 2022.12. 제 2회 사회적경제 정책세미나 ‘대학-지역사회 가치공유 협력 세미나’

자료: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기관소개

또한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 재정지원사업이나, 매칭사업에만 집중되어있는 중간지원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과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나눔장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서정대학교,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및 어린이집연합회와 3건의 협약 체결 등 네트워크 지원의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모 법인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정책세미나가 2회 운영되어 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에 대한 논의를 지역에서 만들어 내었고,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양주시는 ‘양주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의 운영방식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구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의 운영방식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주장한다. 공설공영 형태의 중간지원기관은 정부 조직의 정량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 조직의 수 증가, 공공구매 구매실적 등 몇 가지 주요한 성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이나 법적인 환경 내에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압적 동형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정부 및 지자체 조직으로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압력을 받는 강압적 동형화는 당사자 조직 및 지역환경이 고려가 되지 않아 일관되고 편향된 사업계획을 야기하여 조직성과와 부의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공설민영의 경우 조직의 의사결정단계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 위탁범위를 이상의 성과를 만들기 위한 지역자원 간의 연계, 다양한 사업의 시도를 하고 있어 실무자의 내재적동기부여 및 전문성강화를 통해 조직성과가 정량, 정성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대학이 위탁으로 운영되는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 민간위탁을 통해 공식적인 교육기관과 당사자 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거버넌스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센터의 전담인력 상근자를 배치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과의 연계하고 협력하는 등 양주시 사회적경제 생태계구축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 확보에 성과를 내었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방식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공설공영 방식의 중간지원기관은 정량적 성과평가 방식과 수직적 조직구조, 인건비 총액제 등 구조적 한계로 현장의 요구에 맞춘 긴밀하고 밀착된 지원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중간지원기관의 형태로는 한계점을 보유한다. 둘째, 사회적경제 분야의 중간지원기관은 동시다발적으로 설립, 운영되어 각 지역에 맞는 적합한 사업수준이 아닌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조직형태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며, 이는 다양한 제도의 영향을 받은 제도적 동형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간지원기관의 위치는 일종의 대리기관의 역할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설민영 형태의 중간지원기관은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가 비교적 수월히 발생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통해 인적 물적자원 확보 등 조직성과를 만들어 낸

점을 제시하여 추후 중간지원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김보람·최정민(2017)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공설민영 방식의 중간지원기관 또한 정부의 정량적인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실제 살펴본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 조직운영방식이 2022년에 변화하여 약 1년 정도의 단기간만을 살펴 조직의 성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방식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공설공영 형태와 공설민영의 형태를 모두 경험한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운영방식에 따른 조직의 변화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설민영 방식의 중간지원기관이 정부나 지자체의 정량적 평가에서 더 발전적이고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김보람·최정민, 2017)은 본 연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중간지원기관이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은 가장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함께 지자체가 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기관을 설립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 실제 기관 운영에 중요한 통찰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실천적, 정책적 질문인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해답의 열쇠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권오, 남윤섭(2022),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 NGO 연구 17, 147-177.
- 강내영(2011), 일본중간지원조직의 현황 및 과제, 제3차 농어촌 사회적 기업 활성화 포럼: 해외 중간지원 조직의 운영현황과 시사점, 지역재단.
- 기획재정부(202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전과 성과, 사회적경제 우수사례집, 8-11.
- 김민찬, 남재결(2021), 지역공동체와 중간지원조직 및 정부와의 갈등 분석,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3), 3-33.
- 김보람(2016), 서울시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 간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김보람, 최정민(2017),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 간의 협력관계 연구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2(3), 1-32.
- 김영천, 정정훈(2021), 사회과학을 위한 질적연구 핸드북, 아카데미프레스
- 김재현, 태유리, 이효정, 임윤정(2013),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1-99.
- 마상진(2011),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125.
- 세계타임즈(2021), <https://www.thesegeye.com/news/view/1065607567364523>, (검색일 2023.09.08.)
-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2023), <https://yjcc.yangju.go.kr/secenter/contents.do?key=3103>, (검색일 2023.08.13.)
- 오단이(2013), 자원의존이론과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사회적기업의 형성 및 성장에 관한 사례연구: 초기 인증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3), 269-297.
- 유규창(2019), 조직학의 주요이론 중 “Walter W. Powell과 Paul J. DiMaggio의 신제도주의 조직이론,” 오석홍, 손태원, 이창길 편저, 법문사, 388
- 이경목(2012), 21세기 매니지먼트 이론의 뉴패러다임 중 “3장. 제도이론”, 이학종 외, 위즈덤하우스
- 이원석(2020),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사례연구의 특성, 질적연구, 21(2), 85-91.
- 이자성(2018), 일본 사회적기업의 중간지원조직 특징 및 시사점, 지역산업연구, 41(4), 71-96.
- 장용석(2019), 조직학의 주요이론 중 “W. Richard Scott의 합리체계, 자연체계, 개방체계로서의 조직,” 오석홍, 손태원, 이창길 편저, 법문사, 444-450.
- 장원봉(2009), 사회적 기업의 제도적 동형화 위험과 대안 전략, 시민과세계, (15), 150-164.
- 정다민(2013), 한국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동형화 현상 연구,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SNS 플랫폼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비교-플루서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중심으로, 19, 87.
- 지식경제부(2011),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중간지원 조직 운영매뉴얼,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14-15.
- Hatch, S. (1980), Outside the State London, CrossHelm
- DiMaggio, P. J., & Powell, W. W. (1991), BIntroduction,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1-38.
- Scott, W. R., & Meyer, J. W. (1994), Institutional environments and organizations: Structural

complexity and individualism. Sage.

Stake, R. E. (2006), Multiple case study analysis, Guilford press.

Yazan, B. (2015), Three approaches to case study methods in education: Yin, Merriam, and Stake, The qualitative report, 20(2), 134-152.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Vol. 5), sage.